

계급문학론을 통해 본 김우진의 비평관 연구*

— 문학 비평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을 중심으로

金南奭**

I. 문제 제기와 선행 연구	대한 반박
II. 김우진이 비판하는 비평가의 유형과 그 문제점	IV. 비평문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의 위치와 창작가로서 김우진의 좌표
III. 이광수에 대한 반발과 이광수류 문학에	V. 결론

● 국문초록

김우진은 1925년 4월에 집필한 비평문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을 통해 비평가로서의 강한 자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이 비평문에서 김우진은 기존의 문학 성향을 부정하고 계급문학론을 옹호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기존 조선 문단의 문학가들의 발언과 비평 의식 그리고 창작 활동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 김우진은 이광수를 비롯하여 김동인, 염상섭, 박종화와 김기진, 박영희 등 당대의 문학가(비평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그들의 문학관이 계급문학론을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였다. 아울러 김우진은 이러한 비평적 응수를 통해 자신의 계급문학론을 정립해 나간 흔적을 내보였다. 결국 김우진은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의 연장선상에서 「이광수류의 문학을 매장하라」를 발표하면서, 자신이 겨냥하는 계급문학론의 실체를 정립해 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김우진의 비평관은 결국 그의 창작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된다.

주제어 : 김우진, 계급문학론, 예술관, 비평관, 〈이영녀〉

* 이 연구는 2023년 목포시에서 추진한 “근대문학 유산 문학 분야 문화재 등록”을 위한 학술 조사 연구에 기반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I. 문제 제기와 선행 연구

김우진은 1920년 조선 ‘사실주의 발아’를 위해 중요한 활동을 전개했던 극예술협회의 주요 회원이었고, 이후 조선 연극의 중흥과 이론 정립을 위해 매진했던 비평가 겸 창작자였다. 그 결과 지금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김우진의 희곡과 소설, 평론과 수상, 심지어는 문학 작품에 이르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었다.¹⁾ 하지만 정작 이러한 김우진의 비평 의식에 대한 접근은 상대적으로 소략한 편이었다.

그렇지만 그의 문예비평에 관해 관심을 표한 연구 중에는 김우진의 문학 세계와 문학관을 해명하는 주요한 연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연구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서연호의 연구와 유민영의 저술을 꼽을 수 있다. 서연호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김우진의 문예비평에 대해 논구하면서, 그의 수상과 비평에 관한 글을 묶어 그의 의식 세계를 가늠하고자 했다.²⁾

서연호의 「김우진의 문예비평론」은 비평가로서 김우진의 의식 세계를 정리하고 그의 예술관과 연계하여 살핀 주요한 연구이다. 또한 서연호는 표현주의와 관련된 국내 연구사를 다루는 과정에서도 김우진의 「창작을 권합네다」나 「축지소극장에서 〈인조인간〉을 보고」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초기 표현주의 수용 사례로 고찰하고 있다.³⁾ 서연호는 「창작을 권합네다」를 통해, 김우진이 많은 ‘쓰림과 아픔’을 겪었던 독일인의 처지를 강조하고 독일인들이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표현주의 사조에 관심을 표명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표현주의에 대한 김우진의 접근 방식은 조선(예술계)에 ‘유효한 발언’을 상기시키기 위함이라는 주장이었다.

1) 김우진의 예술과 창작, 비평과 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사는 방대한 분량에 달한다. 여기서는 김우진의 비평 세계와 관련된 선행 연구에 집중하여 그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김우진의 비평관 혹은 연극관에 대한 대표 연구로는 다음을 꼽을 수 있다(서연호, 「김우진(金祐鎭)의 동경유학기(東京留學期) 체험(體驗)과 문학사상(文學思想)」, 『한림일본학』 2, 한림대일본학연구소, 1997, 126~175면; 김성진, 「김우진의 연극관 연구」, 『드라마 연구』 21, 한국드라마학회, 2003, 227~272면; 김도경, 「김우진 문학론 연구 : 재현의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47, 우리말글학회, 2009, 391~411면; 이민영, 「조선적 근대극의 창출, 김우진의 근대극론」, 『어문론총』 55, 한국문학언어학회, 2011 549~571면; 김동현, 「A.A. 밀론 소개를 통한 김우진의 연극관 연구 김우진의 「구미현대극 작가(소개)」론」, 『한국연구』 12, 한국연구원, 2022, 127~158면).

2) 서연호, 「김우진의 문예비평론」, https://www.arko.or.kr/zine/artspaper82_01/19820109.htm

3) 서연호, 『한국연극사』, 연극과인간, 2003, 321면.

유민영은 김우진의 성장 배경과 집안 상황을 비롯하여 그에게 가해졌던 교육과 압력에 대해 자세하게 논구했다. 그러면서 김우진이 니체와 함께 마르크스의 사상에 강력한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⁴⁾ 그리고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에 대한 접근을 시도했다. 유민영은 김우진이 마르크스를 읽었고 그의 사상을 수용했지만, 동시에 “마르크스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데 사상적 깊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표적인 비평문으로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를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 글에서 사회주의에 밀착된 김우진의 문학관을 상찬했다. 이러한 상찬 속에는 이광수의 작품을 논박하고 치열한 작가 의식을 발휘하여 대항한 비평 의식이 고명되고 있다.

유민영의 정리는 그 자체로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유민영은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가 차지하는 비평적 준거를 분석했고 이러한 관점은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가 단순히 이광수 문학과의 척결이나, 버나드 쇼의 사회개혁사상에만 국한된 글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지는 못했다. 그러한 측면에서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에 대한 확장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서연호와 유민영의 총체적 접근에도 불구하고 작금까지는 김우진의 문학관과 예술관 그리고 비평관에 주요한 기저 이론을 제공하고 심지어는 창작관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 ‘계급문학(론)’에 대한 논구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우진은 근대극 발아기의 창작관과 비평관을 주창한 근대 문학자이기는 하지만, 그의 예술관 근거에 계급문학론이 도사리고 있다는 주장은 선뜻 내놓기에는 부담스러운 주장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김우진의 생애를 통시하면, 그의 비평 세계를 통찰하는 작업에 제약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일단 김우진의 비평 세계를 집약하고 대표할 만한 평론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 문물(문화)에 대한 소개와 수상류의 글을 제외하면 그가 남긴 정심한 비평은 그 수가 매우 적다. 자신만의 비평적 관점을 형성하던 도중 그가 요절했기 때문이고, 그가 쓴 글 중에서 적지 않은 비평이 대외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요건 중에서도 김우진의 비평 세계 뿐만 아니라 창작 활동에 대한 중요한 핵심을 간직한 비평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

4) 유민영, 『한국근대연극사신론』 하, 태학사, 2011, 220~268면.

한 비평으로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와 「이광수류의 문학을 매장하라」를 들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를 중심으로 김우진의 비평 의식을 점검하고 해당 비평문에 담겨 있는 김우진의 예술관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이광수류의 문학을 매장하라」는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의 연속선상에서 발표된 비평으로 1925년 시점에서 김우진이 견지하고 있던 비평관의 변화와 승계 양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비평문 가운데 하나이다. 김우진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이광수류의 문학을 매장하라」의 본의를 살필 수 있는 접근 방식이 마련되지 못해서 아직까지 그 본의가 적절하게 파악되지 못한 채 김우진의 문학(비평) 세계에서 소외된 글로 남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비평문을 중심으로 그 연계점과 공유점을 살피고, 그 안에 남아 있는 김우진의 비평적 기반을 살피고자 한다.

Ⅱ. 김우진이 비판하는 비평가의 유형과 그 문제점

1. ‘고답파(高踏派)’ 문학가에 대한 응수

1) 김동인에 대한 응수와 <감자>에 대한 비판

김우진의 비평 의식은 동시대 여러 유형의 비평(가)들에 대한 비판에서,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일차적 결과물에 해당하는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는 조선 문단에서 존재하는 비평가들의 유형을 나누고 그들이 가진 문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글의 논지가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 김우진이 이러한 비평관과 글쓰기를 촉발한 계기는 『개벽』(1925년 2월호)이었다.⁵⁾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의 서두에 언급된 것처럼, 김우진은 이 잡지(수록 글)를 읽은 후에 「계급문학」에 대한 기존 비평가 혹은 문학인들의 반응에 크게 실망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계급문학과 그 개념의 구축이라는 “불가피하고 불가항력인 이 문제에 대하여 식자(識者), 문인, 지식계급이나 무식계급을 막론하고 다 한가지로 좀 더

5) 「階級文學是非論」, 『개벽』 56, 1925년 2월, 43~55면.

생각하고 좀 더 살펴 달라”는 뜻으로,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를 집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글의 개요와 체제를 살펴보면, 김우진은 동시대의 계급문학에 대한 반응을 중심으로 기존 비평가들을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자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된 첫 번째 유형의 비평가는 ‘육체 없는 정신을 믿는 고답파’로 상정되었다. 김우진은 계급문학을 부인하는 부류의 문학인들을 다시 두 개의 부류로 나누었는데, 한 부류는 “고답적 태도”를 드러내는 부류이고, 다른 한 부류는 “회색적 태도”를 드러내는 부류였다.

고답적 태도를 고수하는 이들은 “경향이라든지 주의라든지 파(派)라든 지가 작자와 작품을 지배하는 주형(鑄型)이 아니라”는 주장을 통해 “인생의 생활의 저류에 촉(觸)한 문학”, “영원성을 가진 문학”에 대한 신념을 고수하고자 했다. 고답적 태도 주창자들은 문학의 보편성을 확대하였고, 계급문학의 특수성이 그러한 보편성을 오히려 침해한다는 논지를 피력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에 맞서, 김우진은 이러한 부류의 이들에게 “이 시대, 이 민족, 이 토지, 이 처지에 살아 있는 이상 어찌 경향이라든지 주의라든지 파에 속함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냐고 반문하며, 그런데도 계급문학의 가능성을 일축하는 이들을 ‘혼미자’로 지칭하였다.

이러한 고답적 태도를 갖는 이들은 그러면 대체 “사람이면 누가 보아도 볼 줄을 모르면 듣기만 해도 문학의 효과를 생성할 수 있는 문학”이란 어떠한 것이냐, 어떠한 내용과 가치를 갖는 것이냐 하는 필연적, 논리적 의문에도 대답함이 없다. (……) 그런 예술관에서 나온 작품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화려현란한 화류 장롱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예술가 자신의 막지 못할 예술 욕에서” 창작하는 이는 <감자> 같은 스케치밖에 못 쓴다.⁶⁾(밑줄: 인용자)

김우진은 ‘예술욕’에 입각하여 생성된 대표 작품으로 <감자>를 거론하였다. 문학사적 시각으로 볼 때, <감자>는 계급적 시각이 투영된 작품으로 인정되기도 하는 작품이지만, 1925년 김우진의 비평적 시각하에서는 ‘문예의 영원성’과 ‘사해동포’ 혹은 ‘절

6) 김우진,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육필원고), 목포문학관 소장, 1925년 4월.

대적 윤리' 등으로 호도되는 '지난 세기의 예술관'에 입각한 작품일 따름이었다.⁷⁾ 이러한 예술관은 '예술가 자신의 막지 못할 예술욕'에 해당하므로, 김우진은 이렇게 산출된 작품에는 '생명이 없'다고 단언할 수밖에 없었다. 김우진에게 '생명'은 중요한 문학적·예술적 개념인데,⁸⁾ <감자>에 대한 비판에서 해당 작품이 '고답적인 태도'로 계급문학을 도외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죽은' 문학이라고 강평한 셈이다.

김우진이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의 서장 『『개벽』 이월호』와 2장 '육체 없는 정신을 믿는 고답파(高踏派)'에서 김동인을 직간접적으로 비판한 이유는, 해당 글의 창작 동기에 해당하는 『개벽』(56호)과 관련이 있다.

계급 공기며 계급 음료수라는 것이 존재할 가능성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급문학이라는 것도 존재치 못할 것이겠지요. 문학에 '푸로레타리아'니 '빨조아'니 구별하자고 하는 것도 그 구별하자는 사람 자기의 몰상식함을 나타내어 는데 지나지 못합니다. 었지 문학에 그런 구별을 하겠습니까. 무산계급의 사정을 쓴 작품이라고 그것을 푸로레타리아 문학이라 하며 상류계급의 사정을 쓴 것이라고 그것을 빨조아 문학이라 하면 즘승의 사정을 쓴 작품은 금수문학이라 하겠습니까? (……) 예술은 인생을 위하여서도 아니고 예술 자신을 위하여서도 아니요. 다만 예술가 자신의 막지 못할 예술욕 때문의 예술이외다.⁹⁾(밑줄: 인용자)

이 글을 읽고 난 이후 김우진은 다소 격양된 어조로, 계급문학을 부정하는 이들이 “禽獸를 쓰면 금수문학이라 하겠느냐.” 하거나 ‘음료수에, 공기에 계급이 있느냐’하

7) 김우진이 창작 동기로 언급한 『개벽』(56, 1925년 2월호)에는 김기진이 평(월평)한 김동인 작 <감자>에 대한 비평이 함께 수록되어 있었고, 『개벽』(56호)에는 '계급문학'을 부인하는 김동인의 짧은 글도 소개되어 있었다(김동인, 「藝術家自身の 막지 못할 藝術慾에서」, 『개벽』 56, 1925년 2월, 48~49면).

8) 김우진은 <곡선의 생활>에서 내 안에서 생명 의식('내 안에 살려는 힘')을 발견하였고, <생명력의 고갈>에서 그러한 생명 의식이 고갈된 상황을 주시하면서 이를 새롭게 변혁할 추진력, 즉 '실현코자 하는 힘'을 주창하였다. 동시에 김우진은 이러한 힘에 의한 추진을 수상의 영역과 비평적 전언으로만 남겨둘 수는 없었다. 자연스럽게 김우진은 희곡 창작의 방안을 통해 '내 안에' '생명의 의식'을 의적 세계에 '실현코자 하는 힘'으로 변환하고자 했다. 이러한 변환 시점에서 산출된 작품이 1926년 5월에 탈고된 <난파>였다.

9) 김동인, 앞의 책. 48~49면.

는 열토당토 않은” 논리를 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김우진은 “다만 예술가 자신의 막지 못할 예술욕”에서 문학자(창작자)들이 창작한다는 것은 아메바의 생리적 숙명 밑에서 “막지 못할 생식욕(生殖慾)”의 표현을 희망한다는 것과 다를 없다”고 주장하며, 김동인의 예술욕이 근본적으로 무의하다는 반응을 피력했다.

그러니까 김동인이 제기한 계급문학론 무산(무효) 논지에 대한 반론으로, 김우진이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을 집필한 셈이다. 더구나 계급문학론을 부인하는 문학가 중에서 김우진이 가장 민감하게 대응한 작가 중 한 사람이 김동인이었던 만큼, 1925년 신년작으로 발표된 〈감자〉는 주요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감자〉는 1925년 1월(신년호) 『조선문단』에 발표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개벽』 1925년 2월호에 관련 비평이 소개되었다.¹⁰⁾ 이 호를 읽었다는 김우진의 회고를 참조할 때, 김우진 역시 해당 작품을 읽었을 것으로 보인다. 작품과 작가의 논평을 바탕으로, 김우진은 김동인과 작품 〈감자〉를 고답파 문인의 전형적인 사례로 손꼽았고, 이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과정에서 예술이 ‘예술욕’으로 인해 탄생하고 추동된다는 그의 주장을 비판하는 의미에서, “‘예술가 자신의 막지 못할 예술욕에서’ 창작하는 이는 〈감자〉 같은 스케치밖에 못 쓴다”는 극단적인 비판을 남길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2) 염상섭에 대한 응수와 통속성에 대한 전가

김우진은 ‘고답파’ 작가 진영에 이광수와 염상섭도 포함시켰다. 앞에서 언급한 ‘주형’에 관한 진술은 염상섭의 진술에서 비롯되었다.

문학은 아모 것에도 예속된 것이 아니다. (……) 경향이라든지 주의라든지 파라든 것이 작자와 작품을 지배하는 鑄型이 아닌 이상 다시 말하면 예술이 어떠한 鑄型에 백여내이는 것이 아닌 이상에야 작가가 어더한 주의라든지 일정한 경향에 구속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작품이 완성된 뒤에 第二者가 무슨 주의 무슨 파라고 평정하거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자유일 것이요. 또한 작자로서는 관계가 없는 일일 것이다.¹¹⁾(밑줄: 필자)

10) 김기진, 「一月創作界總評」, 『개벽』 56, 1925년 2월, 10면.

11) 염상섭, 「作家로서는 無意味한 말」, 『개벽』 56, 1925년 2월, 52면.

관련 발언을 종합하면, 염상섭은 계급문학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학의 중심이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고자 했다. 이에 김우진은 계급문학에 대한 염상섭의 유보적 입장에 대해서도 반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염상섭이 지닌 통속적 경향까지 들추어내면서, 염상섭의 문학(창작) 세계가 계급문학을 통찰하거나 가늠할 수준이 되지 못한다는 점도 한꺼번에 통박한다.

“경향, 주의, 파라는 것이 작자와 작품을 지배하는 주형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한 작가는 다만 이웃집 마누라가 놀러 갔다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 - 서울 중류 계급 생활의 단편을 묘사함에 불과한 <전화>를 내놓게 된다. 설령 대화가 발랄하고 착안이 묘함을 얻었고, 테-마의 발전에 자연스러워 그것만으로 독자를 끈다 하여도, 역사상으로 어떠한 시대의 경성 중류 계급 생활을 여실히 그려냈다는 그것뿐이지,¹²⁾(밑줄: 인용자)

김우진은 염상섭의 진술인 ‘경향, 주의, 파’를 다시 빌려, 주형에 대한 논박을 끌어낸다. 김우진의 입장에서 보면, 염상섭은 계급문학을 ‘경향, 주의, 파’에 속하는 일종의 인위적 조작으로 여기고 있는 문학가이다. 그런데 염상섭의 문학은 도리어 무산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계급문학에 반대하면서, 도리어 ‘중류계급’ 혹은 ‘유산계급’의 풍속을 중심으로 한 반대편 진영을 옹호하는 문학적 지향점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논리는 염상섭 스스로 내세운 논리와도 배치된다.

실제에 있어서 작품의 제재를 무산계급에서만 구한다는 것은 現 사회에 있어서-다시 말하면 반대계급 즉 유산계급이 존재한 現 사회에 있어서서는 무리한 주문이다. 그러면 적어도 무산자의 입지에서 제작하라는 주문이 있슬지 모르나 그 亦 작가의 소집문제에 있는 것이요. 결코 강요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계급전의 선전적 사명을 요구함도 만일 이것을 시인한다면 裕餘한 특수 계급이 예술을 遊戲視하고 玩弄物視함 가튼 불순한 태도를 면치 못할 것이니 이는 전술한 바와 같다. 끄트로 저급의 교양을 가진 다대수 민중을 표준하여 작품의 難辭를 피하라함은 일리가 업지 안치만 그리타고 작품을 통속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¹³⁾(밑줄: 인용자)

12) 김우진,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육필원고), 목포문화관 소장, 1925년 4월.

염상섭은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무산계급만을 위한 계급문학이 실효와 가치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인용된 부분을 중심으로 그 이유를 정리하면, 우선 유산계급이 존재하는 시점에서 무산계급만의 제재를 구하는 일은 무리하기 때문이며, 다음으로 계급문학에 도전할 수는 있지만 작가의 소질(경향)로 인해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며, 더구나 선전적 사명 역시 궁극적으로 불순한 태도에 속하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대다수 민중을 표준으로 하는 작업에서 발생하는 작품의 통속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는 그 자체로는 상당한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김우진으로서도 ‘주형’에 관한 발언 이외에는 염상섭의 논리를 개별적으로 반박하지는 못한다. 대신 김우진은 유산계급을 위한 문학이면서 동시에 창작자(여기서는 염상섭)의 창작 성향(‘소질’)에 입각한 작품인 <전화>를 예로 들어 염상섭의 계급문학 무위론을 창작 층위에서 반박하고자 한다.

중류층 이상의 사람들의 관심사를 제재로 쓴 염상섭 작 <전화>는 평소 그의 창작 습관과 서사 전략이 충실하게 반영된 작품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통속소설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경우이기도 하다. 김우진은 이러한 <전화>의 특성을 지적하며, 창작 의도의 측면에서 무산계급을 위한 계급문학에서 벗어나고자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통속화의 길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결론짓는다.

즉 계급문학의 길로 들어서면 통속화의 길을 피할 수 없다는 염상섭의 논리가 반박될 수 있었다. 자연스럽게, “취미가 저열하고 이해력이 유치한” 일반 독자들(염상섭의 원문에는 민중들:인용자) 영합키 위하여 예술적 역량이나 양심을 희생하여 작자 스스로가 비하”한 경우가 염상섭이고 또 <전화>라는 김우진의 반박 논리가 생성된 셈이다.

2. 회색의 문예작가와 이중적 계급문학론의 접점

계급문학을 부정하는 문예 작가 중에서 ‘회색 문예작가’ 역시 김우진에게는 비판 대상이었다(두 번째 대상). 김우진은 회색의 태도를 취하는 이들이 계급문학의 도래와 발흥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가장하며 어느 일방을 선택하지

13) 염상섭, 앞의 글, 53~54면.

않은 이들이라고 구분한다.

그리고 이러한 회색 문예작가들이 궁극적으로는 “계급의 불가피할 존재와 이에 대한 문예의 제이차성을 시인”하면서도 끝에 가서는 “계급만을 위해 싸우느냐, 전 인류 생존을 위해 싸우”냐고 변명하며 물러나는 비겁한 이들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또한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회색 문예작가들이 그렇게 선택하는 이유를 ‘아는 것(지)’과 ‘행하는 것(행)’ 사이의 근본적인 일치를 도모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단정한다. 이러한 이들 역시 조선 문인 중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김우진은 이러한 회색분자를 조선 문단의 주요 해악 중 하나로 간주하는 시각을 견지했다.

이러한 회색 문예작가에 대한 비판은 1926년 5월 『조선지광』에 발표하는 「이광수류의 문학을 매장하라」에서도 공통으로 이어진다. 이 글에서 김우진은 “조선의 새 문예가 발흥(勃興), 융성하였다 하여도 내가 보기에는 소위 문인들이 악경향(惡傾向)으로서의 저널리즘과 피상(皮相)과 인생관 없는 회색태도(灰色態度), 불란서류(佛蘭西流)의 계몽문학에 시종(始終)하여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¹⁴⁾ 이때 그는 회색 문예의 문제가 ‘인생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우진에게 회색 문예는 곧 문학과 그 정신의 타락에 필적하는 문제였던 것이다.

회색 문예작가에 대한 김우진의 비평 의지는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를 넘어 「이광수류의 문학을 매장하라」의 창작 동기로 작용한다. 김우진이 생명력에 입각한 창작에 몰두하면서,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의 비평적 전언을 조율하고 강화할 시기를 상실하는데(1925년 4월 이후), 1926년 「이광수류의 문학을 매장하라」는 이러한 비평적 입장을 이어받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일단 회색 문예작가와 계급문학론자의 접점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김우진은 계급문학론자들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고 있다.

그들(계급문학론자들 인용자) 역시 ‘인권선언’으로 자유, 평등, 우애를 도금(鍍金)하였고 평화, 자유, 데모크라시로 개인을 속박하고 민중을 기만했었던 것을 우리는 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아주 가치가 전도된 평등, 자유, 박애를 본다. (……) 그런데 계급문학론자의 태도에는 우에 말한 바와 같이 형해(形骸)가 갖추고 의식에 넘치는 점을 보지 못하겠다. 근소하나마 매월 월평에 나오는

14) 김우진,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육필원고), 목포문학관 소장, 1925년 4월.

평자의 태도를 보아도 알겠다. 계급투쟁을 썼으니까 그것은 프로문학이라는 맹목적 비평이 적지 않다. (……) 나는 <전투(戰鬪)>에 나타난 계급투쟁의 긍정보다는 몽롱한 설법체(說法體)의 묘사와 개념적인 관찰에 더 실망했다. 또 <붉은 쥐>에 나타난 미직지근한 상징적 수법에 많이 실망하고 작자의 옛본 테마는 가슴에 힘있게 받지를 못했다. 나는 문학 외 모든 예술에 기교나 형식을 절대시는 아니 하나 중대시는 한다.¹⁵⁾(밑줄: 인용자)

일견하면 계급문학론자들의 주장으로서 ‘자유, 파괴, 혁명’에 대한 주장은, 시대의 당위와 문학의 양심을 따르는 주장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러한 ‘부르짖음’을 표방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김우진은 일침을 가한다. 그리고 계급문학론자들에 대한 실망을 노골적으로 피력하기까지 한다. 어쩌면 이러한 당위적 선언을 통해 계급문학론자 중 일부가 민중을 기만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김우진은 계급문학을 표방한 작품 가운데 <전투>와 <붉은 쥐>를 이러한 범주에 포함시키고, “<전투(戰鬪)>에 나타난 계급투쟁의 긍정보다는 몽롱한 설법체(說法體)의 묘사와 개념적인 관찰에 더 실망했”다고 비판했으며, <붉은 쥐>에서는 “미직지근한 상징적 수법에 많이 실망하고 작자의 옛본 테마는 가슴에 힘있게 받지를 못했다”라고 꼬집었다.

여기서 김우진이 언급한 <붉은 쥐>는, 김기진(팔봉)의 단편소설을 가리킨다. <붉은 쥐>는 ‘팔봉산인’의 작품으로 1924년 11월 『개벽』(53호)에 수록되어 있는데,¹⁶⁾ 일반적으로 제1기 프롤레타리아문학의 선두에 놓이는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우진은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의 서두에서 『개벽』 2025년 2월호를 읽고 해당 비평에 착안했다고 밝힌 바 있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장인 ‘육체 없는 정신을 믿는 고답파’에서는 “『개벽』 2월호 외 다른 간행물에 나타난 계급문학론, 혹은 관련된 점에 참가하는 이들의 소론을 둘러보자”고 부기한 바 있다. <붉은 쥐>는 그러한 소론 격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붉은 쥐>를 쓴 김기진(팔봉)은 논란의 시발점 역할을 한 『개벽』(56호, 1925년 2월)에서 마련한 기획 코너 ‘階級文學是非論’에 자신의 견해를 밝힌 비평가이기도

15) 위의 글.

16) 김기진, <붉은 쥐>, 『개벽』 53, 1924년 11월, 129~146면.

하다.¹⁷⁾ 이러한 김기진의 행적과 해당 글 그리고 작품은 김우진에게 비평적 타매 대상이 되었고,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를 촉발한 주요한 집필 계기가 되었다. 엄격하게 말해서 김우진은 『개벽』(56호)에 수록된 글 중에서 주로 어떤 글에 자극을 받아, “조선 문인들의 머리가 아직 저급하고 의식 기분에서 배회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는지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다만 글의 서두에서, 자신이 “계급문학 시비론(是非論)을 고(告)하는 광고”를 보고 기대를 품었다가 오히려 실망했다는 심정을 토로한 바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이 호에 수록된 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 ‘階級文學是非論’이라는 제명으로 마련된 기획 코너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기획에는 김기진의 「피투성이 된 푸로 魂의 表白」을 비롯하여, 김석송의 「階級을 爲함이나 文藝를 爲함이나」, 김동인의 「藝術家自身の 막지 못할 藝術慾에서」, 박영희의 「文學上 功利的 價値如何」, 염상섭의 「作家로서는 無意味한 말」, 李七洙의 「階級을 超越한 藝術이라야」 등이 게재되어 있다. 이 중에서 김기진, 박영희, 김동인 등은 김우진의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와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 예를 들면 고답파에 속하는 작품으로 〈감자〉을 논의할 때,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김동인이 연관되어 논평되는 사례가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김우진은 계급문학론에 대한 김기진의 입장을 의미심장하게 언급하였다. 게다가 『개벽』(56호)에는 프롤레타리아문학 관점에서 시행된 김기진의 작품 평(월평)도 게재되어 있는데,¹⁸⁾ 김우진은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에서 “근소하나마 매월 월평에 나오는 평자의 태도를 보아도 알겠다”는 진술을 덧붙인 바 있었다. 따라서 김우진이 계급문학의 시비를 논하는 글(“계급문학 시비론(是非論)을 고(告)하는 광고”)과, “계급투쟁을 썼으니깐 그것은 프로문학이라는 맹목적 비평”(적 입장)에 자극을 받아, 자신의 글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을 집필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공교롭게도 두 글(‘시비론’ 중 「피투성이 된 푸로 魂의 表白」과 ‘월평’)의 저자는 동일 인물이다. 여기에 김기진 작 〈붉은 쥐〉에 대한 김우진의 언급까지 더하면, 김우진은 김기진의 세 글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견해를 피력한 셈이다. 그래서 후대 연구

17) 김기진, 「피투성이 된 푸로 魂의 表白」, 『개벽』 56, 1925년 2월, 43~55면.

18) 김기진, 「一月創作界總評」, 『개벽』 56, 1925년 2월, 1~18면.

자들은 『개벽』 56호를 통해, 계급문학에 대한 당시 김기진의 견해(시비론)를 다층적으로 살필 수 있는 여지와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그 결과 〈붉은 쥐〉와 김기진의 「階級文學是非論」(「피투성이 된 푸로 魂의 表白」) 그리고 「一月創作界總評」를 통해 확인되는 김기진의 주장과 이에 맞서는 김우진의 생각을 살피는 작업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김우진은 김기진의 〈붉은 쥐〉에서 “미직지근한 상징적 수법”에 실망했고, 작가의 ‘테마’에 공감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붉은 쥐〉의 창작 방식은 노동자, 농민, 빈민의 삶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를 바라보는 형준의 내면세계를 그려내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한 형준의 형상화는 계급문학의 실재성을 우회하는 창작 방식으로 취급될 여지가 농후하다(물론 우회적 창작 방식에 대한 호불호나 평가는 엇갈릴 수 있다).

〈붉은 쥐〉에서 박형준은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살피면서 이웃집 여인에게 연민과 그들이 속한 계급에 대한 문제의식을 절감하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들-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삶에 절대적으로 동참할 수 없는 인물이기도 했다. 그러한 그의 내면세계는 주저함이 가득하다.

-대체 이 모양으로 어느 때까지 지내갈 테냐? 형준이는 생각하얏다. 이, 견딜 수 없는 단 하루 동안을 참고 보지 못할 더러운 현실과, 스스로 정 떠러지는 자기자신의 빈충마진 인물에 대해서, 김히 생각하고 잇섯다. (……) 그러나, 그러나 사람들은 이 문명을 지극히 자연으로 이루어 노앗든 것이며, 또한 이 문명 속에서 커 나아가지 안으면 안되는 것이다. 누가, 일부러 이와가튼 획책(劃策)을 뜻하고 꾸미여 노은 일이 아니고, 사람이 사라 나오는 동안에 제절로 이와 가터 되어 나온 일이다.¹⁹⁾(밑줄: 인용자)

박형준은 자본주의 체제하의 세상이 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김우진이 분류한 대로 정리하면, 〈붉은 쥐〉의 박형준은 계급주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믿는 인물(상)로는 볼 수 있다. 하지만 박형준은 동시에 그렇게 생성된 세상을 긍정하기도 한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필요

19) 김기진, 앞의 작품, 139~140면.

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만연한 자본주의 끝에서 세상이 무너지고 흐르는 독액으로 무너질 것을 예견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러한 세상이 “지극히 자연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문명 속에서 커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김우진의 말대로 하면 박형준은 “자유, 파괴, 혁명을 부르짖으나 어떠한 자유, 어떠한 파괴, 어떠한 혁명을 요구할 것인가는 도무지 모르는 것 같”은 인물이다. 그러한 박형준의 등장하여 실재의 세계와 그가 상상하는 세계 사이에서 ‘배회방황(徘徊彷徨)’하고 있다. 그렇다면 박형준은 회색 문학가의 전형이며, 이러한 문학자의 전형은 김우진이 배척하는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김우진이 <붉은 쥐>를 비판하는 이유도 명확하다고 할 것이다. <붉은 쥐>는 회색 문학가의 궤변을 담은 작품인 만큼, 김우진에게는 동조할 수 없는 계급문학 작품이라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우진 비평적 입장에서는 이광수류의 글도 문제이지만, 계급문학 내부 진영에서도 보여 주는 김기진이 논리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특히 김기진은 박형준이 죽은 쥐를 보고, 그 쥐의 운명과 활동을 인간(프롤레타리아계급)에게 대입하고, 결국 그 죽은 쥐의 운명처럼 인간의 것을 훔치고 가진 자의 것을 빼앗는—마치 대신 저지르는 듯한—설정을 <붉은 쥐>에 도입했다. 이러한 창작 논리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붉은 쥐로 상징되는 민중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박형준(지식인)과 민중의 등치성을 강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등치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붉은 쥐가 무산자 혹은 하층민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상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김우진은 이러한 상징성을 ‘미직지근한’ 것으로 치부하고 그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계급문학론의 관점에서는 진실한 수법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오히려 ‘적은 기교’나 ‘달착지근한 묘사’에 가까워서 ‘의식을 마비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결국 ‘붉은 쥐=민중’이란 상징의 도식은 충분한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민중의 울분과 내면의 바람을 보여 주려는 박형준의 절도와 도전은 힘 있는 전언을 생성하지 못하고 말았다. 고답적 문학관(태도)만큼 회색 문예작가의 주저함을 반대하는 김우진에게 이러한 소설적 설정은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김기진은 김우진에게는 프롤레타리아문학의 가면을 쓴 또 다른 타매 대상일 수밖에 없다.

흔히 프롤레타리아문학의 선구적 작품 <붉은 쥐>로 대표되는 김기진의 문학관이

계급문학론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계급문학의 과감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회색 작가’의 반열에 김기진을 상정하고 있는 셈이다. 자연스럽게 상징성이 약하고 전언은 힘을 갖추지 못한다는 비평이 가능했던 것이다.

3. 지식인의 내면 묘사와 비평가의 진정한 위치

김기진은 계급문학 시비론이 “계급문학의 존재를 시인하느냐 혹은 부인하느냐 하는 논의”라고 전제했다. 이러한 입장은 김우진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되는데, 김우진은 ‘고답파’나 ‘회색 문예작가’를 계급문학을 부인하는 부류로 간주했으며, 설령 진영상으로 비록 계급문학론자일지라도, ‘맹목적 비평’을 산출하는 비평가나 “개인을 속박하고 민중을 기만”하는 계급문학론자를 공히 진실한 계급문학론자로 인정하지 않고자 했다.

그렇다면 김우진에게 김기진은 어떠한 존재일 수 있는가에 대해 논구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우선 김기진이 자신을 규정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자. 김기진은 「피투성이 된 푸로 魂의 表白」에서 “今日の 현상에 잇서서 계급예술-문학의 존재를 시인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 것을 明言”한다고 선포하였으며, 그가 생각하는 계급문학에 대한 정의도 밝힌 바 있다.

계급문학이란 본질적 경향 문제이요 결코 피상적 문제가 아니다. 작품 중에 나타난 작자의 주관과 作中の 인물에 대한 작자의 용의와 태도 여하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작자가 뿌르의식을 가지고 이 작품에 대하얏느냐 또는 작자가 푸로의식을 가지고 이 작품을 제작하얏느냐 하는 것이 그 근본 문제이다. (……) 사회악이라는 것은 착취와 침략과 酷使와 정복의 제도와 조직을 일카름이다. 뿌르문학이 기교적 말초신경적 유희적임에 反하여 푸로문학은 열정적 본질적 전투적이다. 이상은 그 차이점의 一二를 예든 것에 불과하다. (……) 푸로문학이 한 개의 문학인 이상 그것이 순진한 푸로레타리아의 생활 의식에서 출발한 바 자아-개성에 충실한 전인격적 온전한 ‘마음’의 투영이 아니면 안될 것은 莫論이다. 피투성이 된 푸로레타리아의 魂의 표백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이 진정한 푸로문학일 것이다. 푸로를 위한 문학『푸로의 문학』 거기에다 상당한 구

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²⁰⁾(밑줄: 인용자)

전술한 대로, 김기진은 경향문학(계급문학)은 ‘프로의식(푸로의식)’을 지니고 있는냐의 유무에 따라 분별된다고 주장한다. 작가가 “뿌르의식을 가지고 이 작품에 대하얏느냐 또는 작자가 푸로의식을 가지고 이 작품을 제작하얏느냐 하는 것이 그 근본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관점에 의거하여 전자를 따르면 부르조아문학이 되고, 후자를 따르면 프롤레타리아문학이 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언뜻 보면 김우진이 ‘고답파’와 ‘회색파’를 프롤레타리아문학(계급문학)에서 배척하는 논리와도 흡사하다. 그러니 이 논리에 따르면 김우진이 명명한 ‘고답파’와 ‘회색파’(의 일부)는 부르조아문학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정작 김기진의 문학이 프롤레타리아문학, 즉 계급문학에 속하는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김기진은 “푸로문학이 한 개의 문학인 이상 그것이 순진한 푸로레타리아의 생활 의식에서 출발한 바 자아-개성에 충실한 전인격적 온전한 ‘마음’의 투영이 아니면 안”된다는 논리를 첨부했는데,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박형준’이라는 부르조아지 보여 준 내면(마음) 세계는 진정한 푸로문학의 조건에 근접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다음으로, 박형준의 ‘마음’이 “순진한 푸로레타리아의 생활 의식에서 출발한 바 자아-개성에 충실한 전인격적 온전한” 내면세계에 해당하는가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김우진의 관점하에서는 박형준의 내면세계는 프롤레타리아의 ‘생활’을 보여 줄 수 있는 ‘계급문학론자의 태도’라고는 할 수 없었다. 더구나 김우진에게 프롤레타리아문학은 “피투성이 된 푸로레타리아의 혼의 표백”이어야 한다는 김기진식 당위성도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압박과 慘苦 속에 있으면서도 일반 민중은 처음에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전혀 압박자와 지배계급의 馴致 수단에 원인의 대부분이 있었고 또 민중 자신들의 혼미에도 소부분의 원인이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물론 민중 자신이 먼저 눈을 떠야 하겠다. 눈을 뜨기에는 주위에 이미 에워싸고 있는 상태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감촉해야 하겠다. 그러나 민중은 지배계급의 순치에 감촉의 힘이 어렵게 되었다. 여기에서 소위 소수의 특별히 주위의

20) 김기진, 「피투성이 된 푸로 魂의 表白」, 『개벽』 56, 1925년 2월, 44~55면.

환경에 대하여 감축이 예민한 자가 민중 가운데서 생긴다. 이것이 즉 지식계급이다. 그러나 그 지식계급 중에서도 眞僞強弱의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계급적 의식이 남보다 예민하고 양심이 남보다 굳센 자가 나타난다. 이것이 즉 비평가다.²¹⁾

김우진이 말하는 압박자와 지배계급의 순차와, 이를 통해 일어나는 민중의 자각(개안), 그리고 민중의 현실 감축과 선두의 감축자로서 비평가라는 존재는 〈붉은 쥐〉의 구조와 일정 부분 일치되는 것도 사실이다. 논리적으로만 보면, 박형준을 민중을 대표하는 감축자, 그리고 ‘소수의 특별히 주위의 환경에 대하여 감축이 예민한 자’로서의 지식계급에 해당하는 자라고 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서사 내에 등장한 박형준은 김우진이 주장했던 계급문학 속 비평가상과도 (일부) 부합한다는 분석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김우진은 〈붉은 쥐〉에 대해 유보적 평가 혹은 비판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것은 박형준이 상징하고 있는 지식인 혹은 비평가의 위치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를 둘러싼 민중의 실제 움직임은 제한적이고 단절적이기 때문이다. ‘예민한 자’로서 박형준이 민중을 대표하여 선두의 ‘감축’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도 옳게 적용되지 않는다. 박형준은 지식인이기는 하지만 민중의 대변자이거나 그들의 심리를 보여 주는 프롬프트는 아니었기 때문이다.²²⁾

박형준과 민중은 분리되어 있어, 지식계급과 무산계급이 어떠한 형태로든 연대가 일어난다고 하기 어렵다. 이러한 소설적 상황은 박형준이 “계급적 의식이 남보다 예민하고 양심이 남보다 굳센 자”가 되는 길을 차단하고 있다. 오히려 박형준은 민중에서 일어나 “소수의 특별히 주위의 환경에 대하여 감축이 예민한 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차단하고 만다.

이 점은 김기진이 민중과 지식인의 계급을 이론적으로 설파하고, 그 진실된 삶의 방향을 체화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다. 결국 김우진의 결론에 따르면,

21) 김우진,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육필원고), 목포문학관 소장, 1925년 4월.

22) 〈붉은 쥐〉의 형준은 쥐 시체를 통해 “가장 생생하게 자본주의 삶의 이법을 터득하고 진실한 삶을 열망하는 바로 그 수간에 죽음을 맞이하는” 아이러니를 상징하는 존재가 된다(이철호, 「신경향과 비평의 낭만주의적 기원-김기진과 박영희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38,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08, 254면).

박형준이라는 지식인과 김기진이라는 문학가는 김우진이 원하는 ‘비평가’가 될 수 없었다. 다만 ‘빈궁한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항할 수 없는 청년들의 자의식’의 산물에 그칠 따름이었는데,²³⁾ 이러한 문학 논리(창작과 비평)는 계급주의 문학과는 근본적으로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김우진에게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4. 전투(투쟁) 중심의 계급문학과 〈전투〉를 향한 비판

김우진은 박영희의 〈전투〉에 대해, “계급투쟁의 긍정보다는 몽롱한 설법체(說法體)의 묘사와 개념적인 관찰에 더 실망했다”라고 논평했다. 이러한 논평의 맥락에는 박영희가 “참 계급에 눈 뜬 전형적이고 철저할 새 작가가 아니”고, 해당 작품 역시 “작가의 적은 기교, 달착지근한 묘사로 의식을 마비시”키는 작품이라는 견해가 전제되어 있다.

계급문학론자의 태도에는 우에 말한 바와 같이 形態가 갖추고 의식에 넘치는 점을 보지 못하겠다. 근소하나마 매월 월평에 나오는 평자의 태도를 보아도 알겠다. 계급투쟁을 썼으니 그것은 프로문학이라는 맹목적 비평이 적지 않다. 나는 고백하지만 계급문학을 부인하는 작가 중에 오히려 작품으로서의 佳篇이 많이 있다. 나는 이것을 소름 끼치게 두려워한다. 이후로 참 계급에 눈 뜬 전형적이고 철저할 새 작가가 아니 나오는 이상 저러한 작가의 적은 기교, 달착지근한 描寫로 의식을 마비시킬 터이니 이 어찌 두렵지 않겠느냐. 나는 〈전투〉에 나타난 계급투쟁의 긍정보다는 몽롱한 설법체의 묘사와 개념적인 관찰에 더 실망했다. 또 〈붉은 쥐〉에 나타난 미직지근한 상징적 수법에 많이 실망하고 작자의 옛본 테마는 가슴에 힘있게 받지를 못했다. 나는 문학 외 모든 예술에 기교나 형식을 절대시는 아니 하나 중대시는 한다.

이상의 점에 입각하여 나는 참 계급에 눈뜨고 능히 대오 없이 옥석을 선정하는 비평가의 출동을 열망한다.²⁴⁾(밑줄: 인용자)

23) 소영현, 「도래할 ‘신사회’와 사회변혁의 매개-1920년대 전반기 김기진의 사회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60, 국제어문학회, 2014, 440면.

24) 김우진,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육필원고), 목포문화관 소장, 1925년 4월.

김우진이 박영희 작 <전투>를 논평하는 자리는, 김기진 작 <붉은 쥐>도 함께 논평할 자리였다. 김우진은 두 작품을 묶어서 평가하면서 두 사람을 “形骸가 갖추고 의식에 넘치는 점을 보지 못”한 계급문학론자로 취급하고자 했다. 또 “근소하나마 매월 월평에 나오는 평자의 태도를 보아도 알겠다”라는 진술에서 확인되듯, 이러한 계급문학론자의 시각과 평가를 묶어 ‘맹목적 비평(가)’으로 취급하고자 했다.

이렇게 두 사람을 함께 논평하는 이유는 김기진과 박영희가 프롤레타리아문학을 이끄는 선봉장 같은 인물이라는 당시 문단 상황 때문이기도 하지만,²⁵⁾ 동시에 김기진이 『개벽』(56호)에 박영희의 <전투>를 먼저 비평한 전력 때문이기도 하다.

作者는 金權과 官權이 얼마나 더러운 만콥 暗中에 野습을 하느냐-하는 것을 窺호로 暗示하여 준다. 全體로 보아서 新春創作界에서의 가장 무게있는 作品이다. 階級爭鬭를 高調하는 作者가 만주장사 어린애 ‘순복’이를 主人公으로 붙잡아 온데도 作者의 藝術家로서의 準備가 있고 조타. (……) 何如든 이 作品은 죽음 더 流鍊되고 整頓되어야만 할 缺點을 가진 채로 그대로 新年劈頭의 創作界에 있어서서는 가장 무게있는 作品이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不滿을 말하면 ‘순복’이와 ‘정애’의 關係에 對한 說明을 朦朧하게 하여버린 것과 說教體로 地文을 잇다 금식 가다가 써노흔 것과 誇張한 관찰로 說明하고자 한 點이 있는 것은 遺憾이다. 作者는 각금 가다가 넘우도 露骨的으로 主觀을 나타낼려고 하였다. 죽음 더 붓대를 무겁게 잇끌면 조홀 듯하다.²⁶⁾(밑줄: 인용자)

김기진은 <전투>가 비록 결점을 지닌 작품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무게 있는’ 작품이라고 논평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상찬 일색인 이 비평과는 달리, <전투>에서 계급문학의 특징이나 문예 미학이 ‘무게 있게’ 발현되었다고는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²⁷⁾ 김기진은 프롤레타리아문학을 대표하는 비평가 겸 이론가였고, 박영희

25) 이들의 입지는 소위 말하는 ‘문학건축론’을 둘러싼 논쟁으로 더욱 1926년 이후 정점에 달한다(김기진, 「김기진의 문학 비평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1,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1997, 372~377면).

26) 김기진, 「一月創作界總評」, 『개벽』 56, 1925년 2월, 2~4면.

27) 흔히 김기진은 문학건축론을 통해 문학 언어의 형식적 발현을 중시하는 입장을 내세운 반면, 박영희는 치론론을 통해 프롤레타리아 사회 건설을 위해 문학이 이바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형식보다는 ‘힘 있는 문학’과 내용 우선을 강조했다(조계숙, 「현실의 재현과 소설의 묘사-김기

역시 그에 못지않은 위상을 지닌 비평가 겸 창작자였지만, 〈전투〉의 창작 성과나 그 비평 관점에서 그들의 논지와 입장을 부각할 강렬한 근거가 마련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전투〉를 분석하면,²⁸⁾ 김기진의 비평과 이러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전투〉는 부유한 생활을 하던 순복이 어려운 가게 사정으로 인해 ‘만주장사’를 하면서 겪는 울분과 차별 그리고 계급간 불합리와 사회적 모순을 그린 작품이다. 순복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만주장사를 하는 자신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민감하게 체감할 수 있는 인물로 성장한다. 과거 순복의 급우였던 아이(동급생)들은 만주장사 순복을 우습게 여기고, 그를 괴롭혀도 되는 인물로 낙인찍는다.

순복은 처음에는 자신의 처지를 감추기 위하여 그들을 피했지만, 곧 자신이 맞서 싸우지 않으면 돌아오는 수모와 피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그다음부터 순복은 “대항하라! 그까진 자식을 무서워서 다려나려고 하니, 너는 못난이다! 대항하라!”는 내면의 목소리에 충실하고자 한다. 그러자 순복을 돕는 아이들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들은 모두 가난 때문에 세상에 나와 돈을 벌고 수모를 당하고 힘 있는 자들의 위세에 힘겨워하는 아이들이었다. 이 아이들과의 연대는 계급 간 연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순복은 그들—칠성과 정애—과 함께 자신을 조롱하고 괴롭히는 부잣집 아들인 기복 무리에 맞선다. 기복 무리가 당해내지 못하자 어른들이 나서면서, 순복은 점차 어른과도 맞서 싸워야 한다는 당위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렇게 연대한 그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억압에 맞서기로 하였지만, 경찰들은 그러한 순복의 무리를 ‘소년불온단’으로 지칭하고 그 활동을 탄압하면서 아이들일지언정 검거하고자 한다.

순복이 자신의 처지를 자각하고 자신에게 압력을 가하는 이들에 맞서는 과정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속하는 피억압 민중들이, 강압적 권력자에게 맞서는 일련의 사건과 과정에 대한 유비추리를 제공한다. 이때 어린이였던 순복은 단순히 나이가 어린아이에서, 현실의 권력자에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개인의 처지를 상징하는 인물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순복은 처지가 비슷한 동무(동료)들을 결집하여 강력한 힘을 지닌 이들에게 대항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인물로 성장한다.

진, 박영희의 비평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18, 우리어문학회, 2002, 261~265면).

28) 박영희, 〈전투〉, 『개벽』 55, 1925년 1월, 36~54면.

이러한 순복의 정신적 성장과 변모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각성과 개안에 비견될 수 있을 것이다.

박영희는 어른들의 눈으로, 그러니까 권력자의 눈으로 이러한 소년단을 불온소년단으로 지칭하는 상황을 공개한다. 일제 강점기 일본인 권력에 대항하는 조선인은 불령선인으로 낙인찍히고, 그 수배를 위해 경찰까지 나서는 상황이었다. 마찬가지로 어린 순복이지만, 순복 일행은 어느새 쫓기는 신세가 된다. 그러한 신세는 곧 조선인의 처지이자, 사회 하층민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계급의 운명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김기진은 이러한 창작 의도와 서사적 설정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작가 박영희의 서술 전략을 고평가하면서 “新年劈頭の 創作界에 잇서서는 가장 무게잇는 作品”으로 〈전투〉의 가치를 자리매김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러한 고평과 자리매김은 다소 성급한 구석이 있었다. 분명 박영희의 〈전투〉는 어른들의 세계를 빌어, 성인의 세계 즉 조선의 실제 현실을 그려내고자 하는 의도를 함축한 작품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의도와 달리, 실제 성과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러한 측면에서 김기진의 이 비평문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부분적으로 지정한 결점과 관련된다. 김기진은 ‘무게 있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내린 이후에, 사소한 단점처럼 ‘不滿’을 말하겠다고 하면서 “‘순복’이와 ‘정애’의 關係에 對한 說明을 朦朧하게 하여버린 것과 說教體로 地文을 잇다금식 가다가 써노흔 것과 誇張한 관찰로 說明하고자 한 點이 잇는 것은 遺憾이다.”라고 비판적 견해를 사족처럼 덧붙였다.

그런데 김우진은 이러한 김기진의 사족 같은 비판에 더욱 크게 동조했다.

- i) 不滿을 말하면 ‘순복’이와 ‘정애’의 關係에 對한 說明을 朦朧하게 하여버린 것과 說教體로 地文을 잇다금식 가다가 써노흔 것과 誇張한 관찰로 說明하고자 한 點이 잇는 것은 遺憾이다.²⁹⁾(밑줄: 인용자)
- ii) 나는 〈전투〉에 나타난 계급투쟁의 긍정보다는 몽롱한 설법체의 묘사와 개념적인 관찰에 더 실망했다.³⁰⁾(밑줄: 인용자)

김기진이 〈전투〉에 관하여 논평하면서 인물 관계를 ‘몽롱’하게 처리한 점과 ‘설교

29) 김기진, 「一月創作界總評」, 『개벽』 56, 1925년 2월, 4면.

30) 김우진,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육필원고), 목포문화관 소장, 1925년 4월.

체'로 지문을 서술한 점 그리고 과장된 관찰 등의 결함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지적은 김우진 글(비판)에서도 '몽롱', '설법체', '관찰' 등의 용어로 과편화되어 수용되었고, 김우진 비평의 핵심 맥락을 형성하는 주요 개념어로 조립된 흔적을 내보이고 있다. 박영희의 소설 <전투>에 대한 김기진의 상찬은 실제로는 과장된 측면이 다분했고, 면책용으로 부분 언급한 비판 내용이 정당한 평가에 가까웠기 때문에, 김우진 역시 작품(<전투>)과 비평(월평)을 읽고 그 점을 간파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결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그러니 김우진은 김기진의 비판적 요지를 수용했다고 보아야 한다.

박영희가 <전투>를 통해 계급투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계급문학론자의 태도를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정은 창작 의도로만 기능했을 뿐 실제로는 모호한 서사 구조(인물 관계), 설교(혹은 설법)에 가까운 주제 전달 방식, 그리고 피상적이어서 결과적으로는 과장으로 치우친 관찰 결과로 수렴되고 말았다. 따라서 <전투>는 '형해'는 갖추었으나 '의식'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은 작품에 불과했고, 결과적으로는 "계급투쟁을 썼으니까 그것은 프로문학이라는 맹목적 비평(관)"이 적용된 사례로 판단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김우진이 비판하는 계급문학 작품의 오류 중 대표적 본보기라고 해야 한다.

무산자의 문학은 반항의 문학이며 혁명의 문학이며 자유의 문학일 것이다. 그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라 자본주의화한 계급의 지배적 利慾的 전제적의 생산 의식과 무산계급의 반항적 혁명의 생활의식이 相違한 까닭이다. (……) 계급과 계급이 분류되는 때에 문학뿐이 단결을 가질 수 없겠고 계급과 계급이 투쟁하는데 문학뿐만이 평화를 유지할 수 없는 사실로써 이에 계급문학이 분류되는 것이니 하나는 뿌르즈와문학 하나는 푸로레타리아 문학이라. 이에 계급투쟁으로써 생기는 무산계급의 혁명적 사상이 시대정신이라면 이 시대정신의 문학의 공리적 부분은 무산계급문학의 혁명적 사명일 것이다.³¹⁾(밑줄: 인용자)

박영희의 정의에 따르면 계급문학은 "반항의 문학이며 혁명의 문학이며 자유의 문학"이다. 여기서 말하는 반항과 혁명과 자유의 속성은 결국 '계급과 계급의 투쟁'을 겨냥하고 있다. 그러니 계급문학(무산자의 문학)은 부르조아(뿌르즈와) 문학과 대별

31) 박영희, 「文學上 功利的 價値如何」, 『개벽』 56, 1925년 2월, 51~52면.

되는 생활 의식과 미의식, 그리고 쾌락과 목표를 쟁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혁명적 사명’에 동참해야 한다.

언뜻 보면 이러한 개념 규정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계급문학이 투쟁과 혁명을 지향한다는 점은 보편적인 견해에 속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투쟁과 혁명을 문학적으로 그리는(그러내야 하는) 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심했고, 나아가서는 문학이 지닌 유희적 가치로서의 미학을 전면 도외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전투〉와 같은 작품이 양산된다고 해도, 이를 막을 방도나 이를 비판할 척도를 내세우기 어려웠다. 이것은 계급문학(프롤레타리아문학)이 전반적으로 지녔던 문제이기는 하다. 하지만 박영희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이 극단적으로 발현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 상황을 연출했다고 할 수 있겠다. 그것은 앞에서도 지적한 대로 박영희의 경우 작품을 통해 프롤레타리아 사회 건설을 이끌어야 한다는 치론론에 깊게 침윤한 사례였기 때문이다.

〈전투〉에 대해서 김우진은 문예 미학적으로 충실한 작품이 아니며, 근본적으로 그 형해만이 계급문학에 동조하고 있다는 견해를 표출했다. 프롤레타리아 문학가로서 혁명과 투쟁의 의지를 드러내는 작품을 창작(옹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러한 창작 의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학적 문제를 간과할 수 없었다는 비판인 셈이다. 김기진도 그 점에서는 동일했다고 보이는데, 계급문학의 의의를 인정하고 그 진영을 유지하려는 이유로 인해 〈전투〉에 대한 비판적 접근은 자제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우진에게는 그러한 진영 논리나 운동 전략까지도 잘못된 ‘계급문학론자의 태도’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래서 김우진이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의 4장 격인 ‘계급문학론자의 태도’에서는 비단 김기진·박영희의 작품(〈붉은 쥐〉·〈전투〉) 뿐만 아니라 그들의 비평 태도(맹목적 비평관), 그리고 진영 논리와 운동 전략에 대한 총체적 비판이 담길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김우진의 비평관이 무산계급에 기초하면서도 그 내부의 폐쇄적 논리에는 동조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Ⅲ. 이광수에 대한 반발과 이광수류 문학에 대한 반박

1. 이광수의 계급문학론 부정과 김우진의 이광수 부정

당대 문학가에 대한 김우진의 비판은 이광수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김우진은 이광수의 문학론과 이광수류의 문학에 대한 깊은 반발을 표한 바 있다. 우선, 김우진이 이광수의 문학론에 대한 반발을 최초로 드러낸 시점을 살펴보자. 그 시점은 1925년 4월로, 앞에서 언급한 대로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에서 계급문학에 대한 반론을 펴는 시점에 해당한다.

김우진은 김동인, 염상섭을 비롯하여 김기진, 박영희 등이 주장한 계급문학(시비)론에 대해 반박을 가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계급문학과 그 비평가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이후 김우진은 「이광수류의 문학을 매장하라」를 발표하는데, 이를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이광수류의 문학에 대한 비판과 반론을 본격화하였다.

여기서는 일단 김우진이 이러한 비판적 입장을 개진하는 시점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전술한 대로 김우진은 1925년 2월 『개벽』(56호)에 수록된 「계급문학시비론」을 통독하였는데, 그중에는 이광수가 집필한 「계급을 초월한 예술이라야」라는 짧은 글도 포함되어 있었다.

階級을 超越한 藝術이라야

나(이광수: 인용자)는 계급문학이라는 말에 대하여 그다지 큰 흥미를 가지지 아니합니다. 母論 지식계급만이 조와할 만한 문학도 있겠고 특히 유산계급의 흥미에 맞는 문학도 있겠고 또는 다수의 무식무산민중이 조와할 만한 문학도 있겠지요. 만일 이러한 의미로 계급문학이라 하면 나는 후자가 만히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작가가 작품을 만들 때에는 다만 거미가 거미줄을 내이고 누에가 고치를 짓는 것모양을 짓는 것이니 거미더러 누엣고치를 지으라 하더라도 무리겠지요. 그럼으로 계급문학을 절규하더라도 그것은 비평가의 소리뿐이지 별로 큰 수익은 업스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계급을 초월한 예술의 존재를 믿습니다. 인생의 생활의 저류에 觸한 문학은 계급을 초월하여서 사람이면 누가 보아도 볼 줄을 모르면 듯기만 해도 문학의 효과를 生할 수 있는 문학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럼으로 나는 다만 ‘참으로’ ‘자연스럽게’ ‘힘을 다하여’ 문학을 지으려 할 뿐입니다.³²⁾(밑줄: 인용자)

김동인이나 염상섭 등과 마찬가지로, 이광수 역시 계급문학에 대해 제한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더구나 이광수는 계급문학에 대한 개인적인 무관심을 인정하고 있다. 계급문학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며 그러한 문학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던(“계급문학이라는 것도 존재치 못할 것이겠지요”) 김동인과는 달랐고,³³⁾ 다른 측면에서는 문학(예술)은 완전한 독립성을 침해받을 수 없다는 염상섭의 주장과도 달랐지만(“그 어느 견지로서든지 예술의 완전한 독립성을 거부할 수 없다”),³⁴⁾ 이광수 역시 계급문학의 필요성과 존재 여부 그리고 활용 가능성에 대해 대단히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했다.

그래서 그는 계급문학을 선언하고 이를 전파하기 위하여 나서는 이들(비평가들)이 일시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해도, 궁극에는 문학 자체는 ‘계급을 초월한 예술의 존재’를 지향할 것이라는 이상주의적 견해를 펼쳤다. 즉 이광수에게 계급문학은 관심을 두는 문학이 아니고, 관심을 둘 필요도 없는 문학이었던 셈이다. 그러니 이광수가 지향하는 문학은 계급을 초월한 문학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에 김우진은 다음과 같이 직접적인 반론을 표한다.

“계급을 초월한 예술” 작가이기 때문에 뿌티 부르주아지의 값싼 눈물이나 호기심이나 끝 〈무정〉, 〈개척자〉, 안이한 인도주의적인 동시에 평범하기 짝없는 〈혈서〉밖에 못 내놓는다.³⁵⁾

김우진은 ‘계급을 초월’해야 진정한 문학이 된다는 이광수의 전언에 대해, 이광수의 작품 〈무정〉, 〈개척자〉 혹은 〈혈서〉 등이 지닌 문학적 역량에 대한 폄하로 응수했다. 이러한 응수 논법은 김동인 주장에 대해 〈감자〉의 ‘예술욕’을 내세우고, 염상섭의 주장에 대해 〈전화〉의 통속성을 지시하는 논법과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비평가로서의 이광수가 계급을 초월한 예술로서의 소설을 주장했지만, 창작자로서의 이광수는 결국 “뿌티 부르주아지의 값싼 눈물이나 호기심”을 충족하는 결과밖에는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셈이다. 이러한 논법은 다소 허무할 수 있다. 이광수에 대한 정교한

32) 이광수, 「階級을 超越한 藝術이라야」, 『개벽』 56, 1925년 2월, 55면.

33) 김동인, 「藝術家自身的 막지 못할 藝術慾에서」, 『개벽』 56, 1925년 2월, 48~49면 참조.

34) 염상섭, 「作家로서는 無意味한 말」, 『개벽』 56, 1925년 2월, 53~54면.

35) 김우진,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육필원고), 목포문화관 소장, 1925년 4월.

비판이나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에는 이 점을 의식한 것처럼 보이는 논지 전개 대목이 존재한다.

계급문학은 계급을 시인하는 점에서 출발한다. 계급이란 것은 무엇인가. 맑시스트의 “과거의 모든 기록된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라는 것을 나는 그대로 허용해서 생각지 않겠다. 우리는 적어도 일인(一人) 이상의 공동생활—더 넓게 말하면 자연 속에서 사는 인간은 대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대립은 현실 생활의 본체다. 미와 추, 명과 암, 선과 악, 정의와 부정, 자유와 속박, 피(彼)와 차(此), 타(他)와 아(我), 이런 모든 대립은 현실적 인간 생활의 본상(本相)이고 진리다. 이런 대립을 벗어나려 하는 이상주의자는 우리의 참 생활에 아무 관계가 없다. 제 아무리 그런 대립을 초월한 인생관이나 우주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먹고, 놀고, 입고, 일하는 생활에서는 이 대립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진 ‘생(生)’이란 것이 있는 후 ‘생’이란 것이 끝날 때까지 영구히 그리할 것을 추리나 유추가 아니라도 직각(直覺)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원시적 대립에서 한 보 더 나아가 우리는 계급이라는 대립에 당도하여 왔다. 즉 압박자와 피압박자, 약탈자와 피약탈자, 자유를 생활하려는 자와 자유를 빼앗는 자,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 우리의 생활은 여기까지 미쳐 왔다. 생활상의 원시적 대립은 오늘날 모든 과학의 덕택으로 어느 정도까지 무관심하게 되어 왔으나 그 대신에 그 과학이 주는 온갖 해독(害毒)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대립을 주게 되었다. 즉 근대 산업문명이 주는 계급적 대립이다.³⁶⁾(밑줄: 인용자)

위의 대목은 이광수의 논지에 대한 우회적인 반박에 해당한다. 김우진의 논지를 정리하면, 계급문학(탄생과 유지)은 계급을 전제로 해야 하고, 이때 계급의 문제는 ‘대립’이라는 ‘생활의 본체’에서 연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현실 속 인간은 대립과 계급의 문제를 초월할 수 없다. 역지로 이러한 계급과 대립을 초월하겠다는 생각을 피력하는 이(‘이상주의자’)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이러한 이상주의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광수일 것이다—인간의 ‘참 생활에 아무 관계가 없’을 것이며, 그러한 대립을 고집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대립을 초월한 인생관이나 우주관을 가지고 있다

36) 김우진,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육필원고), 목포문화관 소장, 1925년 4월.

하드래도’—“먹고, 놀고, 입고, 일하는 생활에서는 이 대립을 벗어나지 못”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립의 논리는 “압박자와 피압박자, 약탈자와 피약탈자, 자유를 생활하려는 자와 자유를 빼앗는 자,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대립으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갈등과 길항 역시 인간의 생활 영역으로 포함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계급적 대립은 근대 산업문명의 근간이자 핵심이기도 하다. 이러한 김우진의 논리에서는 이광수류의 문학(관)은 허무맹랑한 “사회주의니 사해동포니 민주주의” 등으로 포장되어서는 안 되는 문학관이며, 그 너머에 존재하는 사회에 대한 개인의 반항을 주목하기 위하여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하는 예술관인 셈이다. 이러한 김우진의 비판적 견해가 더욱 직접적으로 드러난 글이 「이광수류의 문학을 매장하라」이다.

2. 이광수에 대한 김우진의 문제 제기

김우진은 「이광수류의 문학을 매장하라」에서 이광수와 관련된 문제 제기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김우진은 “이광수류의 安易한 이상주의적 사상과 시대에 反馳되는 인생관으로써 문단을 대하고 조선을 보고 인생을 보는 이가 얼마나 많은가”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 많은 문학청년이 이광수의 영향을 받았고, 그 영향으로부터 조선의 문단이 생성된 점을 인정한다고 해도, 이광수류의 문학이 끼치고 있는 해악은 이제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광수의 조선문단관(朝鮮文壇觀) 만큼이나 그의 소설, 시 평론을 아니 실은 신문, 잡지가 없고 그의 이름을 아니 말하는 독자 계급(讀者階級)이 없을 때 또 그만한 이광수의 경향이 업지 아니한다. 조선 문단을 말하는 이는 그만큼이나 잡지 『조선문단(朝鮮文壇)』을 말한다. 이 이광수류의 문학청년의 운집(雲集)하는 상(狀)을 보아라. 그가 쓰는 글이 가진 특성, 물같이 순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걸림 없는 고운 글, 문학생(文學生)이 좋아하는 화려한 재화(才華), 그런 것을 내가 시기해서는 아니다. 그러나 내가 이광수를 조선문단에서 매장(埋葬)하라는 부르짖음은 이광수류의 인생관, 사상, 재주만 가진 껍데기 문학을 절멸(絶滅)하라는 요구다. 왜 그런가 하니 문예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니까.³⁷⁾

김우진은 이광수가 확보한 조선 문단에서의 시초성을 인정하고, 그의 문학적 파급력과 보편성을 인정하며, 또한 이광수 문학이 지닌 다양한 장점을 인정한다. 다시 말해서 김우진은 이광수가 조선 문단(조선 근대문학)의 초창기에 등장하여 나름대로 자신의 역할을 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러한 이광수의 문학이 지닌 한계와 단점 그리고 시효성이 다한 의의까지 무한 긍정하고 있는 당시의 시대 조류였다. 특히 문학청년들이 이광수의 문학을 문학의 전범으로 삼으면서, 조선의 문단은 상당한 피해와 해독을 떠안게 되었다.

이에, 비교적 일찍부터 이광수와 그의 문학(류)을 경계했던 김우진은, 1926년 시점에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시행했다. 그 계기는 이광수가 『동아일보』에 게재한 「중용과 철저」였다. 이광수는 1926년 1월(2일부터) 「중용과 철저-조선이 가지고 싹튼 문학」이라는 글을 연재했다. 이 글을 읽은 김우진은 이광수가 쓴 「중용과 철저」를 맹렬하게 반박했다.

이광수는 「중용과 철저」의 서두에서 인간에게는 특별한 것도 중요하지만, 평범한 것이 필요하다는 논지를 통해 조선 문학에서 필요한 것은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라 “일생에 물리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것이야말로 “진실로 위대한 가치”를 지닌다고 설파했다.³⁷⁾

김우진은 이러한 이광수의 전제를 ‘평범 문학’이라고 규정했고, 자신의 글에서 중점적인 비판 대상으로 삼았다. 일단 이광수가 이러한 평범 문학을 주창한 이유를 상세하게 살펴보자.

무엇에나 상(常)과 변(變)이 잇거니와 문학(모든 예술에도)에도 그것이 있다. 밥과 가치 신선한 공기기와 물과 가치 태양의 광선과 가치 현숙한 안해와 가치 늘 보니 평범한 듯하면서도 늘 보아도 물리지 아니하는 문학이 있고 반작이는 유성과 가치 달디단 꿀물과 가치 요염한 창기와 가치 일시는 반작하야 우리의 감각을 무섭게 자격(刺激)하나 얼마 아니하야 곳 물리고 마는 문학이 있다. 이 두(李杜)의 시나 소위 당송팔대가문이나 서양으로 보면, 호머, 셰익스피어 가튼 이의 시 같은 것 또한 순전히 문학이라고는 할 수 업서도 동양의 사서오경이라

37) 김우진, 「이광수류의 문학을 매장하라」, 서연호·홍창수 편, 『김우진 전집 II』, 연극과인간, 2000, 295면.

38) 이광수, 「中庸과 徹底 조선이 가지고 싹튼 문학」, 『동아일보』, 1926년 1월 2일, 4면 참조.

든지 서양의 친구약 같은 것은 수 백 년 내지 수 천 년을 읽어 내려와도 물리지 아니하는 문학이어나와 그 중간에는 무수한 소재기재(小才奇才)들의 작품은 일시 인심(人心)을 현혹할 일이 있더라도 곧 물려버려 조균과 가치 해고(蠅蜚)와 가치 슬어져 버리고 만다.³⁹⁾(밑줄: 인용자)

이광수가 말하는 ‘반작해야 우리의 감각을 무섭게 자격하’는 문학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광수는 바이론을 예를 들어(매튜 아놀드의 의견을 빌려), 그의 문학의 변의 문학이지만 결국은 영원성의 문제에서 결함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사회가 침체의 상태’에 있을 때는 그러한 ‘극단에서 극단으로 다라나는 교 격한 혁명가 시인’이 각광을 받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한편 바이론의 사례와 대비하여, 이광수가 상찬한 시인은 에즈워드였다. 에즈워드는 매튜 아놀드와 이광수의 비평적 견지에서는 에즈워드가 영원성의 문학을 추구하고 常의 논리를 몸소 보여 준 시인이었다.

증오, 쟁투, 저주, 살육의 감정적 고취에 근접한 혁명의 고취가 문학의 정수가 될 수 없다는 이광수의 말은, 곧 계급문학의 입장에 서 있는 김우진에게는 자신의 진영과 비평적 관점에 대한 비판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광수는 “‘힘’이라는 말이 근래 문예의 비평에 성행한다”는 표현을 통해, 일찍부터 힘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김우진의 논리에 반하는 지적을 내놓은 바 있었다(이광수가 김우진을 의식하고 행한 발언은 아니다).

일찍이 김우진은 1925년 4월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에서 ‘계급투쟁’을 언급한 이래, 1925년 6월 〈曲線의 生活〉에서 ‘살려는 힘’, 1926년 3월 〈生命力の 枯渴〉에서 “실현코자 하는 힘” 그리고 1926년 6월 〈A Protesto〉에서 “내 속 생활의 힘”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니 이러한 힘에 대한 이광수의 지적—반드시 김우진을 지칭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김우진의 반론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인생은 싸움이다. 자연과의 싸움, 계급과의 싸움, 이것 없이는 인생이란 소, 말과 같이 ‘제일 심심하고 맛있는 천당’으로 화할 것이다. 이런 천당이 지금까지 과거 인류 세계에 瞬間이라도 실현했던 적이 있었는가. 있었던들 이광수

39) 이광수, 「中庸과 徹底 조선이 가지고 심혼 문학」, 『동아일보』, 1926년 1월 2일, 4면.

의 이상주의적 문학이 소위 ‘영원한 진리와 가치’를 가졌을 것이다.

이광수의 인생에 대한 태도의 특색인 안이한 인도주의, 평범한 계몽기적 이상주의, 반동적인 예술상의 평범주의는 이러한 인생에 대한 통찰의 부족에서 나왔다. 더구나 그는 이러한 인생의 평범주의에 앉아서 오늘 조선 문화도 그러한 평범문학이 되어야 한다고 선전한다. 이 평범이란 그의 말속에는 다만 한가한 가정의 한가한 소일거리가 될 만한 문학이라야 “영구불변한 가치를 갖는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리해서 그는 ‘春園’을 만대에 남기려고 이 혼 누더기 탈 쓴 정조관념으로 일관된 『春香』을 썼던 것도 한가지苦笑거리다.⁴⁰⁾

김우진은 이광수의 문학 논리를 ‘평범 문학’으로 간추렸다. 김우진은 ‘평범 문학’이라는 용어를 광수의 표현에서 빌려 왔지만, 그 과정에서 해당 의미를 축소하여 보편이 아닌 나태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중병치의 조선’이라는 표현 역시 도용하여, 중병 조선의 현실을 무시하고 원론적인 문학을 강조하는 이광수를 역으로 비판하고자 했다.⁴¹⁾ ‘문학의 상과 정도’를 운운하는 이광수의 문학 이론을 ‘안이한 인도주의, 평범한 계몽기적 이상주의, 반동적인 예술상의 평범주의’로 규정해 버린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평범 문학-는 ‘인생에 대한 통찰의 부족’에서 나왔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이광수와 김우진은 힘의 문제에서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이광수의 평범한 것의 오래된 속성을 강조하면서 은은한 힘(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면)의 가치를 옹호한 반면, 김우진은 당시 조선의 위중한 현실을 감안하여 이를 과감하게 돌파하고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힘으로서의 투쟁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한쪽이 영원의 문학을 강조한다면, 다른 한쪽은 혁신의 문학에 눈을 돌리고 있는 셈이다.

김우진은 이를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이광수가 ‘춘향’의 이야기를 썼다고 비난했다. “‘春園’을 만대 남기려고 이 혼 누더기 탈 쓴 정조관념으로 일관된 『春香』을 썼”다면서, ‘춘(春)’이라는 동의어를 통해 춘원이 춘향의 정조관을 이어받고 있다고

40) 김우진, 「이광수류의 문학을 매장하라」(육필원고), 목포문화관 소장, 1926년 5월.

41) 1920년대 조선의 문학을 “중병을 앓고 난 사람과 같다”고 말한 이는 이광수였다(이광수, 「中庸과徹底 조선이 가지고 십혼 문학」(2), 『동아일보』, 1926년 1월 3일, 5면 참조). 하지만 이를 김우진은 이광수의 안일한 현실 인식을 비판하는 비유로 원용했다.

야유했다. 이러한 김우진의 논리는 다음과 같은 글을 보면 명확하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출가 이전의 노라가 한 남성의 玩弄物로서 아버지의 손에서 남편의 손으로 옮겨온 것과 같이, 오늘날의 여성의 하이맨은 옛날 승려나 제사장이나 尊親의 손에서 떠나게 되는 동시에 남성 일반의 손에 옮겨오게 된 것이다. (……)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 신앙, 이 시, 이 도덕, 이 미신이 모두 남성이 여성에 대한 우월, 약자에 대한 강자의 소유욕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다른 오늘날까지의 사회 모든 제도와 관념이 그러했지만 이 점에 있어서도 남성이 한 여성을 영구히 소유할 야심으로 (기실 오늘날 남성처럼 애인 바꾸기에 여념이 없지만) 경제와 완력을 유일한 무기로 하여 처녀성의 독점을 요구하려는 것이다. (……) 정신상으로 노라의 자각이 오늘 이후의 여성에게 필요하다면 육체상, 심리상으로도 이 Jus Prime Noctis를 여성 자신들이 주재해야 한다. 남성으로부터, 낡은 정조 관념으로부터 떠나야 한다(……) 만일 이 정조 관념만 없었다면 춘향이는 훌륭한 노르웨이의 노라보다 더 가치 있고 고마운 여자가 되었을 것이다.⁴²⁾(밑줄: 인용자)

김우진은 〈인형의 집〉의 노라를 예로 들면서, 이 여인이 오랫동안 간혀 있었던 인식의 틀을 깰 수 있었던 상황을 설명한 바 있었다.⁴³⁾ 여성의 주체성이 박탈되고 초야권을 남성이 소유한 시대에 여성들은 ‘남성의 완롱물’이 된 상태였다. 하지만 노라가 남편의 집을 나가면서 그때까지 여성의 자립을 방해하던 모든 문학적 전언은 잘못된 ‘신앙’, 오도된 ‘시’, 그리고 그릇된 ‘도덕’이 된다. 구시대의 이러한 관념과 그 소산(물)이 “모두 남성이 여성에 대한 우월, 약자에 대한 강자의 소유욕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는 새로운 인식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른바 여성들이 남성들이 소유하던 초야권의 진정한 문제가 드러난 셈이다.

하지만 〈춘향전〉의 춘향은 이러한 초야권을 다시 남성에게 돌려주는 ‘정조 관념’이 강한 여인으로 설정되었다. 김우진에게 〈춘향전〉의 ‘춘향’은 회수해야 할 초야권을.

42) 김우진, 〈Jus Prime Noctis〉(육필원고), 집필 연대 미상.

43) 김우진, 「소위 근대극의 대하야」, 서연호·홍창수 편, 『김우진 전집』 2, 연극과인간, 2000, 31면 참조.

오히려 남성들에게 돌려주는 역행적 여인상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녀-춘향’의 정조 관념은 과거의 문학, 오래된 철학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이광수의 논리와 흡사하다. 그래서 춘원 이광수는 춘향에게 집착하고, 그녀의 위상을 높게 평가하는 논지를 보유했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노라의 혁명과 그 행동의 가치에 주목하는 김우진에게, 그러한 춘향의 위상을 강조하는 이광수는 비판 대상일 수밖에 없다.

한편, 이광수는 「중용과 철저」에서 영문학을 찬미하면서 북구문학과 비교를 시행했는데, “(영문학은) 북구문학과 같이 음침하고 무시무시하고 뻑뻑하고 뚝뚝한 맛은 없고 구수무려하고 따뜻하고 약념 과하지 아니한 밥과 반찬과 같다”고 상찬했다.⁴⁴⁾ 북구문학의 대표작 중 하나가 입센의 〈인형의 집〉이라고 할 때, 이러한 이광수의 평가 역시 김우진의 그것과 상당히 배치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⁴⁵⁾

김우진은 〈인형의 집〉의 탄생과 입센의 여성 의식(입센주의)을 매우 중요한 근대극의 예술적·사상적 가치이자 근거로 간주하고 있다.⁴⁶⁾ 또한 앞에서 예로 든 것처럼 김우진은 〈Jus Prime Noctis〉에서 약자이자 소외자의 주체성 확립을 강조하면서 〈인형의 집〉의 노라의 위상을 부각하는 논지를 전개했는데, 이러한 논지는 이광수의 말대로 하면 “음침하고 무시무시하고 뻑뻑하고 뚝뚝한 맛”은 있으나 중용의 도를 인정하지 못하고 여성의 남성 세계 전복을 강조하는 극단의 미학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광수가 강조하는 평범 문학의 관점에서는 이탈한 문학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 김우진의 입장에서 이광수의 전언(문학 논지)이 아무래도 수용하기 어려운 공상적인 것에 불과했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광수의 논지는 조선(인)은 당시 ‘중병 알코난 사람’의 처지와 동일하기 때문에, 자극적이고 변화만화한 것은 해가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광수가 말한 ‘상적(常的) 문학’, ‘정적 문학’, 그리고 ‘영문학적 문학’이 이러한 중병의 해소책이 될 수 있을지는 당시에 폭넓게 용인되지 않았다.⁴⁷⁾ 문제는 이러한 이광수

44) 이광수, 「中庸과 徹底 조선이 가지고 십흔 문학」, 『동아일보』, 1926년 1월 2일, 4면.

45) 김우진은 〈인형의 집〉이 탄생과 입센의 자각을 매우 중요한 근대극의 예술적·사상적 가치이자 근거로 간주하고 있다(김우진, 「소위 근대극의 대하야」, 서연호·홍창수 편, 『김우진 전집』 2, 연극과인간, 2000, 31면 참조).

46) 김우진, 「소위 근대극의 대하야」, 서연호·홍창수 편, 『김우진 전집』 2, 연극과인간, 2000, 31면; 김재석, 「김우진의 여성 인식에 대한 비교연극학적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28, 한국극예술학회, 2008, 115~146면 참조.

의 주장에 김우진 역시 동의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니 ‘이광수류의 문학’은 김우진에게는 하루빨리 ‘매장’할 수밖에 없는 문학이었을 것이다.

IV. 비평문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의 위치와 창작가로서 김우진의 좌표

김우진은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에서 조선 문학(조선 문단)을 재편하고 새로운 민중 이념을 복돋을 수 있는 비평가의 자질과 출현에 대한 자신의 비평적 견해를 적극적으로 개진한 바 있다. 특히 마지막 장에 해당하는 ‘비평가여, 나오라!’라는 장에서는 이러한 비평가의 등장을 직접적으로 염원하기까지 했다.

비평가여, 나오라!

진실한 비평가가 민중의 대언자가 되며, 프롬프트가 되는 데는 결국 그 사회와 민중의 ‘생(生)의 힘’ 문제에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봉건사회 제도가 필연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제도로 변하며 자본주의 사회제도가 필연적으로 사회주의 제도로 변한다고 수수방관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거기에는 시대 의식과 양심의 강약에 따라 노력과 의욕과 전투의 세계가 있을 뿐이다. 한편으로 자연적, 사회상 진화의 경로를 믿는 소극적 태도보다도 프로메테우스의 반발력과 생명력과 의욕력이 더 인생과 사회에 가치가 있다. (……) 오늘의 문예비평가는 문예나 사상의 감상(鑑賞)에서만 배회할 것이 아니다. 그런 감상적(鑑賞的) 혹은 인상적 비평은 전(前) 세기식(世紀式)의 제이류 비평가에게 맡겨라. 비평에 창조가 있고 창작 그것만치 가치가 있다면 오늘 비평가는 확실히 일대(一代)의 민중 의식, 계급투쟁의 지도자가 되며 선봉이 되어야 할 것이다.⁴⁷⁾(밑줄: 인용자)

김우진이 생각하는 조선 사회와 조선 문학계는 봉건사회(제도)에서 자본주의 사회

47) 가령 양주동 같은 이는 ‘중용’의 철학이 조선 문학의 특색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양주동, 「철저(徹底)와 중용(中庸)」, 『조선일보』, 1926년 1월 23일, 3면 참조).

48) 김우진,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육필원고), 목포문화관 소장, 1925년 4월.

(제도)로 변모하는 중이었으며,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사회주의(제도)로 이행할 예정이었다. 이러한 변화의 도정에서, 비평가들의 태도는 중요하다. 이러한 변화의 도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시대 의식과 양심의 강약에 따라 노력과 의욕과 전투의 세계”에 뛰어들어야 하기 때문이며, “사회상 진화의 경로를 믿는 소극적 태도 보다도 프로메테우스의 반발력과 생명력과 의욕력이 더 인생과 사회에 가치”가 있다는 신념을 고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김우진이 생각하는 비평가의 ‘시대적 사명’은 “문예나 사상의 감상(鑑賞)에서만 배회”하는 태도에 있지 않았고, 동시대 비평가의 입지는 “일대(一代)의 민중 의식, 계급투쟁의 지도자가 되며 선봉이 되”는 자리를 점유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김우진의 이상이나 비평적 염원과는 달리, 동시대 조선의 비평가는 중대한 문제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김우진은 창작가로서 활동하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 신극과 일본 근대극 그리고 세계(구미)의 연극적 사조를 두루 통찰하고 조선 연극의 기초를 세우고자 노력한 비평가이기도 했다. 그러한 김우진에게 자신의 문학관을 드러내는 출사표와 같은 글이 필요하지 않을 수 없었다.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는 그러한 김우진의 내면 의식과 비평적 지향을 드러내는 요로에 위치한 글이다.

그런데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는 김우진이 생전에 발표한 적이 없는 비평이었다. 당연히해도 이 글은 조선의 비평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글은 다른 방식으로 김우진에게 영향을 미쳤고 우회적으로 조선 문단에 파급력을 발휘했다. 그러한 영향력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겠다. 우선, 그러한 영향력의 직접적인 결과물로, 후속 비평문의 산출을 들 수 있다. 김우진은 1925년 4월에 집필한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은, 이후 김우진의 대표 평론으로 지칭되는 「이광수류의 문학을 매장하라」(『조선지광』, 1926년 5월)를 산출하는 기반이 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특히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는 비단 문학평론으로서만 의의와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이 글은 김우진의 예술관에 작용하여, 창작과 관련된 그의 지향점을 새롭게 점검하도록 도운 바 있다. 김우진의 초기 대표 희곡이라고 할 수 있는 <이영녀>는 이 글의 요지에 부합되는 작품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니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는 김우진의 희곡과 연극 세계를 함께 조망하고 그의 세계관과 예술관의 기반을 그 그전에서 살필 수 있는 소중한 비평 근거가 아닐 수 없다.

<이영녀>의 집필 시점은 실제로 1925년 겨울에서 1926년 상반기로 추정된다. 육필 원고 1막 시작 전에 ‘1925.9’라는 표기가 남아 있어서 이러한 추정에 근거를 더하고

있다. 만일 〈이영녀〉의 집필 시점이 1925년 9월에서 겨울 사이라면, 1925년 4월에 집필된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와 연계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김우진은 〈감자〉에 대해 기묘한 평가를 내린 바 있었다.

“예술가 자신의 막지 못할 예술욕에서” 창작하는 이는 〈감자〉 같은 스케치 밖에 못 쓴다. 그만큼 암시 깊고 풍부한 내용을 가진 테마로도 고만 한번 한숨에 내리읽고 나서는 “고것 묘한 걸, 제법 썼는걸.” 하는 잠간기안(暫間氣安)한 감정밖에 못을 박게 되고 만다. 만일 〈감자〉의 작자가 일정한 주의와 주장이 있는 이라면 〈감자〉보다 더 훌륭한 장편을 만들 줄 안다.⁴⁹⁾(밑줄: 인용자)

〈이영녀〉는 ‘가난’과 ‘여인’과 ‘매음’이라는 소재적 관점에서는 〈감자〉와 폭넓은 공유점을 장착한 작품이다. 물론 작품의 장르와 세부는 상이하지만, 가난한 현실과 몸을 파는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의 몰락(죽음)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모티프를 추구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이러한 관점과 추정이 인정된다면, 김우진이 ‘〈감자〉 같은 스케치’를 바탕으로 ‘일정한 주의와 주장’을 결합하여 ‘더 훌륭한 장편’으로서의 ‘장막극’을 창작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렇다면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에서 희구했던 비평가가 비평적 충동을 통해, 김우진이라는 극작가의 극작 욕구를 자극하고 결과적으로 ‘주의와 주장’을 담아내는 작품의 실현에 뛰어들었다는 일련의 견해도 생성될 수 있다. 김우진이 말했던 비평가는 자기 자신을 추동하(려)는 객관화된 자기였으며, 그 결과 〈감자〉와 〈이영녀〉의 관련성(연속성)이 마련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추론과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가 필수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다.

V. 결론

김우진 문예비평의 중심은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에서 본격적으로 출발한다. 계급문학의 옹호론자였던 김우진은 ‘계급문학시비론’에 의해 자신의 비평관을 개진

49) 위의 글.

해야 한다는 비평가의 자의식을 가동하였고, 이러한 비평적 자의식은 기존 문단 진영과 그 중심의 문학가(비평가)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추동했다. 김동인을 비롯하여, 염상섭, 이광수 등은 김우진이 생각하는 고답적 문학 혹은 이상적 문학의 중심이었다. 김우진에게 그들이 문학/비평 논리는 타락한 중심에서 쏟아져 나오는 지난 시대의 비겁한 자기 옹호에 불과했다.

계급문학론의 선두에서 한참 이론적 근간을 형성하던 김기진과 박영희도 예외는 아니었다. 김우진은 그들 비평론의 허실을 발견하고, 『개벽』에서 그들이 행한 ‘계급 문학시비론’과 더불어 그들의 창작품(〈붉은 쥐〉와 〈전투〉), 그리고 그 창작에 대한 비평을 두루 언급하였다. 김우진은 그들의 작품과 비평 활동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견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계급문학론의 장래를 설파했다. 그러한 김우진의 메타비평적 견해가 집중된 비평(글)이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가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는 김우진이 비평가로서 기존 문단과 기성 비평가들을 향해 던진 일종의 출사표였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가 비단 비평가적 견해만을 담은 글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는 김우진(희곡)의 창작 방향을 일정 부분 암시하고 있다. 김우진의 작품 가운데 사실주의 경향을 강하게 담보하면서 계급 문학(론)의 영향을 강하게 풍기는 작품이 〈이영녀〉이다. 이 〈이영녀〉는 1925년 9월 이후 창작된 작품으로, 시기상으로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 집필 이후에 산출된 작품이며,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과 「이광수류의 문학을 매장하라」 사이에서 김우진의 무산계급문학론이 성장하는 시기에 창작된 희곡이다.

본론에서 언급한 대로 〈감자〉와의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더욱 본격적인 무산계급에 대한 관심을 수용한 작품이었다. 이러한 작품 산출 과정을 본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지만, 김우진의 비평관이 실제 창작의 사례로 전환되면서 민중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프롤레타리아 대언자로서의 비평가로 나아가는 도정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김우진은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에서 김동인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감자〉의 단점(자신이 생각한)을 제거하고 계급 문학의 특성을 담은 장편(장막극)을 집필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서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는 「이광수류의 문학을 매장하라」의 논지를 이끌어내는 초석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 비평사적 궤적으로 볼 때, 이광수에 대한 김우진의 비판적 입장은 1926년 1월 「중용과 철저」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으로 집약

된 것은 사실이다. 이 글 「이광수류의 문학을 매장하라」에서 김우진은 과격할 정도로 이광수의 논리를 분쇄하고 중용의 철학과 평범 문학이 조선 문단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 단초는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에 담겨 있었다. 왜냐하면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가 김우진의 비평 의식을 일차적으로 정리하는 자리에서 산출된 비평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1925~1926년 시점에서 김우진이 비평가로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진단된다. 당시 김우진은 문단으로의 강력한 진입을 꿈꾸고 있었고, 이러한 진로는 연극과 예술 방면에서도 동일했다. 하지만 기존의 문단과 기성 문예 이론은 김우진의 그것과는 차이를 보였고, 김우진 역시 그러한 차이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극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외부 세계(문단과 비평계)에서 제기된 두 개의 화두(1925년 2월 ‘계급문학시비론’과 1926년 1월 「중용과 철저」)에 대해, 김우진은 적극적으로 응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니 두 개의 화두는 김우진에게 자신의 계급문학론을 정립할 정비의 시간과(「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 기존 문단 세력과 대항할 새로운 전투의 장(「이광수류의 문학을 매장하라」)을 열어 준 셈이다.

참고문헌

- 「階級文學是非論」, 『개벽』 56, 1925년 2월, 43~55면
- 김기진, 〈붉은 쥐〉, 『개벽』 53, 1924년 11월, 129~146면
- _____, 「一月創作界總評」, 『개벽』 56, 1925년 2월, 1~18면
- _____, 「피투성이 된 푸로 魂의 表白」, 『개벽』 56, 1925년 2월, 43~55면
- 김동인, 「藝術家自身の 막지 못할 藝術慾에서」, 『개벽』 56, 1925년 2월, 48~49면
- 김우진, 「소위 근대극의 대하야」, 서연호·홍창수 편, 『김우진 전집』 2, 연극과인간, 2000
- _____,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육필원고), 목포문화관 소장, 1925년 4월
- _____, 「이광수류의 문학을 매장하라」(육필원고), 목포문화관 소장, 1926년 5월
- _____, 「이광수류의 문학을 매장하라」, 서연호·홍창수 편, 『김우진 전집Ⅱ』, 연극과인간, 2000
- _____, 〈Jus Prime Noctis〉(육필원고), 집필 연대 미상
- 나도향, 「빨르니 푸로니 할 수는 없지만」, 『개벽』 56, 1925년 2월, 54면
- 박영희, 「文學上 功利的 價値如何」, 『개벽』 56, 1925년 2월, 51~52면
- _____, 〈전투〉, 『개벽』 55, 1925년 1월, 36~54면
- 박중화, 「人生生活에 必然的 發生의 階級文學」, 『개벽』 56, 1925년 2월, 49면
- 양주동, 「철저(徹底)와 중용(中庸)」, 『조선일보』, 1926년 1월 23일, 3면
- 염상섭, 「作家로서는 無意味한 말」, 『개벽』 56, 1925년 2월, 52~54면
- 이광수, 「階級을 超越한 藝術이라야」, 『개벽』 56, 1925년 2월, 55면
- _____, 「中庸과 徹底 조선이 가지고 십흔 문학」(1~2), 『동아일보』, 1926년 1월 2~3일, 4~5면
- 서연호, 『한국연극사』, 연극과인간, 2003
- 유민영, 『한국근대연극사신론』(하), 태학사, 2011
- 김기중, 「김기진의 문학 비평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1,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1997
- 김도경, 「김우진 문학론 연구 : 재현의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47, 우리말글학회, 2009
- 김동현, 「A.A.밀른 소개를 통한 김우진의 연극관 연구 김우진의 「구미현대극작가(소개)」론」, 『한국연구』 12, 한국연구원, 2022
- 김성진, 「김우진의 연극관 연구」, 『드라마 연구』 21, 한국드라마학회, 2003
- 김재석, 「김우진의 여성 인식에 대한 비교연극학적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28, 한국극예술학회, 2008
- 서연호, 「김우진(金祐鎭)의 동경유학기(東京留學期) 체험(體驗)과 문학사상(文學思想)」, 『한림일본학』 2, 한림대일본학연구소, 1997, 126~175면.

- _____, 「김우진의 문예비평론」, https://www.arko.or.kr/zine/artspaper82_01/19820109.htm
- 소영현, 「도래할 ‘신사회’와 사회변혁의 매개-1920년대 전반기 김기진의 사회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60, 국제어문학회, 2014
- 이민영, 「조선적 근대극의 창출, 김우진의 근대극론」, 『어문론총』 55, 한국문학언어학회, 2011
- 이철호, 「신경향과 비평의 낭만주의적 기원-김기진과 박영희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38, 민족문학사학회 · 민족문학사연구소, 2008
- 조계숙, 「현실의 재현과 소설의 묘사-김기진, 박영희의 비평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18, 우리어문학회, 2002

A study on Kim Woojin's View of Criticism through the Literary Theory of Class Literature

Kim, Nam-seok

Kim Woojin revealed his strong self-consciousness as a critic through the critical text 「Class Literature and Critics from My Perspective(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 written in April 1925. In this critical text, Kim Woojin denied the existing literary tendency and advocated the Literary Theory of Class Literature. And for this purpose, Kim Woojin comprehensively analyzed the remarks, critical consciousness, and creative activities of Korean literary writers. Kim Woojin expressed his views on Lee Gwangsu, Kim Dongin, Yeom Sangseop, Bak Jonghwa, Kim Gijin, and Bag Yeonghi, who were literary figures of the time and criticized the reality that their view of literature did not accept the Literary Theory of Class Literature. In addition, Kim Woojin showed traces of establishing his own Literary Theory of Class Literature through this critical response. In the end, Kim Woojin published 「Bury the Literature following Kwangsoo Lee」 as an extension of 「Class Literature and Critics from My Perspective」, and Literary Theory of Class written aimed by Kim Woo-jin himself could be established. It is confirmed that Kim Woojin's view of criticism has had a considerable influence on his creation. It is confirmed that Kim Woojin's view of criticism has had a considerable influence on his creative activities.

Key Words : Kim Woojin, Literary Theory of Class Literature, View of Art, View of Criticism, 〈iyeongnyeo〉